

## 고양이 농흉 1 증례

조민영, 방동하, 변예은, 정주현, 김완희, 황철용\*, 윤정희, 윤화영, 최민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내과학

**서 론:** 농흉은 흉강 내에 농성 삼출물이 차는 질환으로 주로 사냥견에서 발생하며 고양이에서는 발생빈도가 드문 질환이다. 농흉은 직접적인 감염 (예 교상 및 흉강천자 등)이나 인접기관에서의 전파 (예 식도 파열 및 기관지폐렴 등), 그리고 혈행성 혹은 림프관성 감염 (예 패혈증)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고양이에서는 이 같은 감염경로가 뚜렷하지 않는 특발성 감염이 흔하며 최근 면역 저하나 만성 상부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국소 면역력의 저하로 구강 내 세균의 침범이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재료 및 방법:** 7달된 암컷 아비시니안 고양이가 10일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과 식욕부진을 주증으로 본원에 의뢰되었다. 병력 상에서 3개월 이상의 만성적인 콧물과 재채기를 호소하였다. CBC상에서 심한 염증소견을 나타내었으며 흉부 방사선에서 흉수가 확인되었다. 흉수의 세포학적 검사에서 다양한 세균과 함께 변성 염증세포들이 다량 관찰되었다. 감염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호기 및 혐기성 세균 배양과 곰팡이 배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호기 배양에서 그람 음성 단간균이 검출되었으며 혐기 배양 시 그람 음성 간균이 관찰되었다. 곰팡이 배양 결과는 음성이었다.

**결 과:**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흉으로 진단되었다. 치료는 배양 결과를 바탕으로 metronidazole 15mg/kg과 enrofloxacin 5mg/kg를 하루에 두 번씩 정맥으로 주사하였고, 흉강 내 삼출물을 제거하기 위해 탐색적 개흉술을 통해 흉강세척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 배액을 위해 흉관을 양측에 삽입하였다. 첫 날 매 두 시간마다 배액을 실시하였으며 점차 삼출물이 감소되어 배액 간격을 늘렸다. 배액 후 호흡이 매우 안정적으로 변하였다. 주기적인 흉수의 세포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3일째부터는 흉수에서 더 이상 세균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점성이 많이 감소되었고 식욕 및 활력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하지만 다시 7일째부터 흉수 검사에서 세균이 관찰되기 시작하여 Clavamox<sup>®</sup> 62.5mg/cat을 추가하였다. 식욕 및 활력은 정상적이었으므로 Clavamox<sup>®</sup>는 경구로 하루 두 차례 투여하였다. 8일째부터 하루 배액 총량이 2ml/kg/day 미만으로 관찰되었으며 혈액검사와 흉수의 양상이 개선되고 있어 지속적인 흉관 삽입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이 우려되어 11일째 되는 날 흉관을 제거하였다. 그 후 실시한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더 이상의 삼출물이 늘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임상증상이나 CBC상의 이상도 관찰되지 않아 치료를 종료 하였다. 현재는 정기적으로 환자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Corresponding author: cyhwang@snu.ac.kr